

대장간

대장간은 사철과 목탄으로 금속 도구와 무기를 제조하는 전국적인 생산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. 초기의 독립한 대장간은 일본도가 전문이었지만, 화승총이나 농기구, 목공 도구, 냄비, 식도, 칼, 가위 등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.

고급 강철을 생산하기에는 수량에 한계가 있었고,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대장간에서는 귀중한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그중 하나가 제작 중인 날붙이 등의 날 부분에 작은 강철을 접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접합 작업을 거쳐 연마한 공구의 하사키(베는 부분)는 강철과 같은 절삭력과 내구성을 갖추었으며, 강철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기법은 팽이나 낫의 날(아래 전시품)과 같은 농기구를 제조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.